美 쇠고기 불신 … 한우에 '불똥'

'광우병 괴담' 여파 전문음식점 한산

한우 소비자 가격 내려도 매출 급감

"소갈비값은 2주 전보다 한근(600g)에 500원이나 내렸는데 매출은 되레 줄었어요."

광주시 동구 H갈비 전문점 대표는 "경기가 좋지 않아선지 최근 '광우병' 파동 때문인지 한우를 찾는 손님들이 부쩍 떨어져 죽을 맛"이라고 걱정했다.

'광우병 괴담' 여파로 미국쇠고기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우와 호주산 쇠고기 판매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특히 한우의 경우 소비자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어 판매량마저 급격히 줄어 한우농가의 고민이 깊어지는 추세다.

6일 광주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5일 현재 전남산 H한우(최상급 등심·100g)는 8천450원으로, 2주 전에 비해 200원(2.3%) 떨어진 가격에 거래됐다. 반면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35%나 감소했다.

광주신세계이마트와 홈플러스도 지난달 28일부터 5월4일까지 쇠고기 매출이 전주 대비 7%나 줄었다.

신세계이마트 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가 본격적으로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한우는 물론 5일 호주산 쇠고기도 전날에 비해 10%가량 매출이 빠졌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소비자들이 납득할 만한 안전성을 확보할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 판매계획 자체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협이 파악한 한우 소비자가격의 경우 갈비(1등급·500g)는 지난달 21일 3만4천167원에서 5월2일 현재 3만3천원으로 3.4%(1천167원) 내렸으며, 등심도 3만1천247원→3만159원(3.5%)으로 떨어졌다.

산지 한우가격도 곤두박질쳤다. 같은 기간동안 큰암소(600㎏)는 462만1천원→449만2천원(2.8%), 암송아지(마리)는 181만2천원→159만4천원(12.0%) 내린 가격에 거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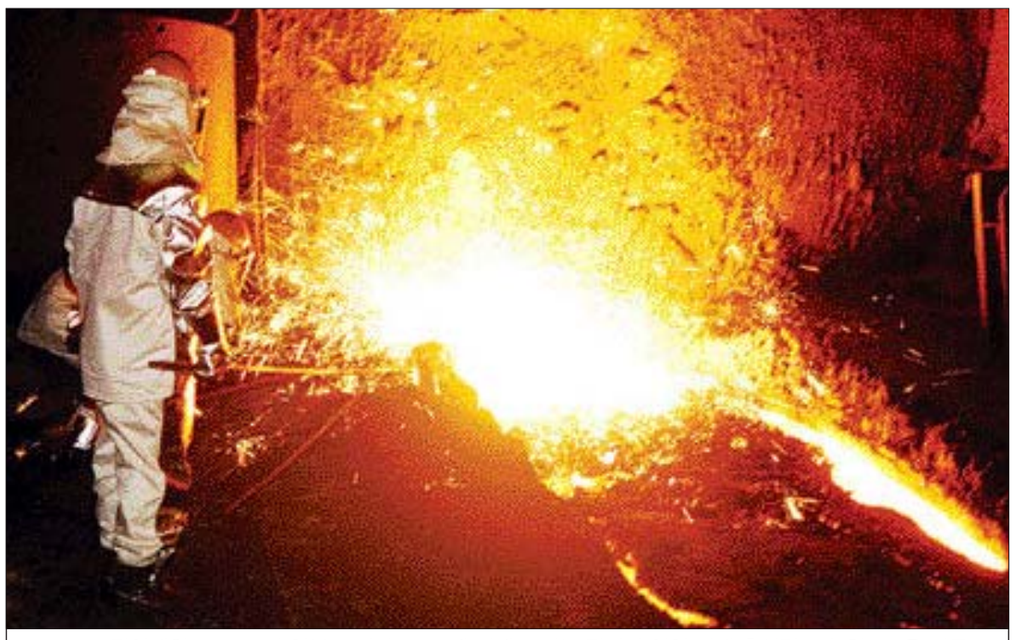
나주 축산농민 K모(56)씨는 "지난해부터 지속된 사료값 급증에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파동으로 인해 산지 한우가격은 물론 한우 거래량마저 급감, 소농사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고 걱정했다.

반면 대체재인 돼지고기의 경우 사료값 폭등 등으로 공급은 줄었으나 봄철을 맞아 야외 나들이가 늘어나면서 신세계이마트에서 지난달 28일부터 5월4일까지 매출이 20% 증가했다.

홈플러스에서도 같은 기간 18% 신장했다. 가격도 돼지삼겹살(100g)이 5일 현재 1천950원으로, 2주전에 비해 11.8% 올랐다.

이와 관련, 패스트푸드점과 패밀리레스토랑 등 외식업체들은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면서 한우나 호주산 쇠고기를 사용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포스코 광양제철소 3고로가 일본 오이타 2고로에 비해 크기는 적지만 일일 최대 출선량 1만4천350t을 기록,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다. 3고로에서 쇳물(선철)을 빼내고 있는 장면. 〈광양제철소 제공〉

광양제철 1일 출선량 세계 1위

3고로, 하루 1만4,000여t 쇳물 생산

세계 590여개 고로 중 가장 많은 양

포스코 광양제철소 3고로가 1일 최대 출선량 세계 신기록을 수립, 전 세계에서 가동중인 590여개 고로중 가장 많은 쇳물을 생산하는 고로가 됐다.

광양 3고로는 지난달 18일 1일 최대 출선량 1만4천350t을 달성하며, 일본 오이타 2고로가 지난해 3월28일에 세운 1만4천200t을 뛰어넘었다.

특히 광양 3고로는 내용적이 4천600㎥로 일본 오이타 2고 5천775㎥의 80% 수준에 불과해 이번 신기록 수립은 포스코의 고로 운전과 관리기술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쇳물 1만4천350t은 중형 승용차 한대를 생산할 때 쇳물 1t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1만4천350대의 승용차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일일 승용차 생산량 1만201대를 광양 3고로가 단독으로 공급하고도, 4천대 이상을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셈이다.

3고로는 4월중 월간 1일 평균 1만3천651t의 쇳물을 생산해(출선비 2.97T/D/㎥), 3천㎥급 이상 대형고로 중에서 월간 평균 최고 출선비 세계 신기록도 함께 달성했다.

이로써 광양제철소는 비전인 '글로벌 넘버원 자동차강판 전문 제철소 완성'이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토대를 확보하고, 출선비 기술확보로 향후 후판공장 신설에 따른 쇳물의 안정적인 공급체제를 마련한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 3고로는 지난해 11월 세계 최단기간인 55일만에 개수를 마치고, 내용적이 21% 확대된 국내 최대의 4천600㎥ 고로로 재탄생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광양=김춘호기자 chkim@

전남도, 美 투자사 3천만달러 투자 유치

광양항 물류창고 건립 비용

전남도가 세계적 투자펀드기업으로부터 광양항에 물류창고 건립을 위한 3천만달러 투자협약을 이끌어냈다.

박준영 도지사를 단장으로 미국을 순방중인 전남도 투자유치단은 6일 뉴욕에서 세계적 투자펀드기업인 캡스톤사와 3천만달러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캡스톤사는 운용자산이 15억달러에 이르는 세계적 투자펀드로 광양항 등 항만물류가 가능한 지역에 물류창고인 '웨어하우스' 건립을 위해 3천만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박 지사는 협약 체결식에서 "광양항이 동북아의 항만물류 중심으로 성장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캡스톤사의 투자결정은 광양항 물류기능을 활성화하고 배후부지 개발을 촉진하는 연쇄 상승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지사 일행은 이날 카지노·부동산 투자로 유명한 트럼프사 등 3개 기업을 방문, 전남도에 투자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지사는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예방하고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당시 외무장관 시절 외교통상부에서 기반을 조성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현대·기아차 - MS 전략적 제휴

IT 차량부품 개발 나선다

현대·기아차가 세계 IT산업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MS(마이크로소프트)와 6일 차량용 IT 부문에서 전략적 제휴를 체결, 첨단 IT기반의 자동차를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 제휴를 통해 현대·기아차는 MS와 2010년 중반까지 북미시장을 목표로 하는 차세대 오디오시스템을 개발한 뒤 텔레매틱스 서비스와 인터넷 콘텐츠의 차량내 활용을 위한 다양한 기술개발 공조에 나서게 된다.

현대·기아차가 이번에 MS와 첨단 IT가 접목된 차량 개발을 위해 협력관계를 구축한 것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 뿐 아니라 갈수록 '전자화'되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흐름 속에서 경쟁업체들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대체연료 자동차의 경우 현대·기아차는 내년에 준중형급 모델인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 양산에 들어가며, 2010년에는 중형 가솔린 및 LPG 하이브리드 생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光銀 1분기 순익 407억원

창사 이래 최대 실적

작년보다 17% 늘어

광주은행이 올 1·4분기에 40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는 등 창사 이후 최대 실적을 거뒀다.

6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1·4분기 결산결과 총 549억원의 세전이익을 남겼으며, 법인세를 감안한 당기순이익도 407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4분기에 비해 순이익 규모가 16.9%(59억원) 커진 것으로, 창사 이후 최대 실적이다.

광주은행은 또 총수신이 지난해 1·4분기보다 8.9%(1조원) 증가했으며, 총대출도 같은 기간 15.9%(1조4천억원)나 늘었다.

특히 올해 수익증권판매 잔액은 2조3천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79%(1조원) 증가했다.

이와 관련, 광주은행은 1·4분기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4%에 달하며, 고정이하여신비율(0.64%)과 연체율(0.66%) 등 각종 자산건전성 지표도 크게 개선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농산물 직거래 자금 지원

aT(농수산물유통공사) 광주·전남지사(지사장 권용주)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소매유통 개선촉진을 위해 2008년 농산물 직거래 매취자금을 지원한다.

자금의 용도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조직으로부터 직거래를 위한 1차 농산물(가공식품·수산물 제외) 구입자금이며, 금리는 3%에 대출기간은 1년이다. 문의 aT 광주전남지사 수출유통팀(062-940-7020).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내집은 꼼꼼히…

마륵동 '상무자이' 사전점검

GS건설은 광주시 서구 마륵동의 '상무자이'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입주자 사전점검 행사를 벌이고 있다.

사전점검 행사는 소비자들이 입주 1~2개월 전 도배·조경·도장공사 등 공사진행 상황을 최종 확인하는 과정으로, 지난달 26일 시작됐다. 〈사진〉

이번 행사에서는 또 단지내 커뮤니티 공간인 '자이안센터'에서 프로골퍼 초청 레슨과 첨단보안시스템 시연 등이 열려 입주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문의 062-368-2020. /최경호기자 choice@